

2009년 시무사

사랑하는 서해도시가스 임직원 여러분 !

새로운 한 해인 기축년(己丑年)이 밝았습니다.

새롭다는 것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2008년은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2009년을 설렘과 기회의 시간으로 기쁘게 맞이합시다. 앞으로 이 설렘을 성장과 보람으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장과 보람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난관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전세계에 걸친 경제위기는 국내 산업전반에 생산량 감소, 공장가동 중단, 공장폐쇄 등으로 연결되어 국내기업들은 물론 각 가정들의 살림살이도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가스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으며, 부실채권 발생가능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시장 변화, 가스 산업선진화에 따른 도시가스산업의 수직계열화 및 대기업편중화 우려 등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9년은 우리모두에게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극심한 불황이야말로 우리회사에게 있어서 의미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2009년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과감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첫째, 우리는 일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회사 2009년도 경영슬로건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업가치극대화”로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해야 할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실시하는 것보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선택된 것에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효율적인 경비절감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외부의 사정이 어려운 이 시기에 위기를 뛰어 넘을 수 있는 해결방안은 효율적인 경비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비절감을 이유로 본질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효율성을 겸비한 경비절감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다양한 수요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체로 편중된 도시가스 매출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용 및 일반용에 대한 수요개발을 중점추진하고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미공급 지역인 태안기업도시를 비롯한 태안군 및 신평면 등의 지역의 공급인프라구축에 매진하여 보다 많은 수요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개발은 어느 특정 팀원들만의 업무라기 보다 모든 임직원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고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요처 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사업에 대한 발굴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양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조사와 준비를 통해 우리회사가 영속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만한 아이템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회사는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석문국가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공급권역내 집단에너지 지구지정에 적절한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업검토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업을 보호하고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서해도시가스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Safety and Happy Together”라는 사회공헌활동 슬로건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Safety, Hope, Humanity 분야의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민 없이는 우리 고객도 없으며 우리회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실천과 노력은 우리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하며, 2009 년도가 창사이래 위기가 아닌 성장의 디딤돌로 삼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09 년에 우리는 수요가수 56,700 개소, 매출량 350,000 천 m³, 매출액 2,300 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믿고 우리회사를 보다 좋은 회사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의 열정을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는 저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2009 년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우리회사가 번창할 수 있도록 합시다.

새로운 한 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년 1 월 5 일

대표이사 사장 윤웅하